광주시, 말뿐인 AI 중심도시 …'메타버스' 시늉만 낸다

8월 10일부터 운영 시작
허접한 배경에 빈약한 콘텐츠
활용 계획도 담당 부서도 없어
오픈 두 달…방문객 수 460명
인천 10만·제주 4만명과 대조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광주시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맵(왼쪽)과 인천시 서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메타버스 캡쳐〉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광주시가 말뿐인 AI 중심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만들었지만, 콘텐츠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할 계획은 물론 담당 부서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광주시는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빛고을 광주광역시청 소통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메타버스'가 차세대 플랫폼으로 급 부상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제페토', '이프랜드'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에 광주시도 MZ세대를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광주시청을 홍보하고자 외주업체에 제작까지 맡겼다.

하지만 막상 광주시청 메타버스에 접속해 본 시민들은 '아직 공사 중인 건물 같다', '차라리 만들지 말지'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실제 시청의 내·외부를 구경할 수 있도록 꾸몄다는 제작목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 '메타버스'(Metaverse)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상자아)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상호 교류를 하고 쇼핑도 하며 현실처럼 활동할 수 있다.

메타버스내 광주시청 1층의 민원고객봉사실은 책상도 없는 빈 공간이었다. 광주시의회동에는 이름도 없이 텅 비어있는 공간들이 대부분이었다. 광주시청 내 회의실 의자에는 앉을 수 있는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도 부지기수였다.

하늘의 색깔은 그래픽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는지 파란색이 아닌 회색이었고, 시청 주변도 잔디와 나무뿐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오픈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방문객 수는 460명 뿐으로 하루에 6명 꼴로 접속하고 있다.

광주시보다 10여 일 앞서 지난 7월 29일부터 인천시 서구에서 운영하는 '청라국제도시 메타버스'는 현재 방문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고, 지난해 7월 제작된 '제주도 성산일출봉 메타버스'는 4만 명이 넘게 접속해 광주시와 비교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곳들의 성공 요인으로 깔끔한 맵과 경쾌한 음악, 섬세한 그래픽, 다양한 즐길거리 등이 공통점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뿐만 아니다. 광주의 공공기관도 너나 할 것 없이 메타버스에 뛰어들었지만, 수백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광주지방보훈청은 미래 세대에게 보훈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960만 원을 들여 제페토에 '광주보훈랜드'를 만들었다.

5·18민주화운동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6·25 격전지인 옛 산동교 등을 구현해 지난 6월 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23일 오후 2시 기준 방문객 수는 1527명으로 하루 방문자 수는 10명 꼴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000만 원을 들여 제페토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메타버스'를 만들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교직원과 시민들에게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 4일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방문객 수는 2770명으로 하루 9명 접속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내부 탐방과 퀴즈, 미션 등 몇 가지 콘텐츠가 있지만, 맥락이 없고, 일회성 퀴즈에 그치다 보니 사용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단순 기관 소개를 위한 퀴즈가 아니라 광주의 역사 등과 연계해 스토리를 입히는 방식 등을 활용해 사용자를 끌어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희수 조선대학교 AI융합대학산업단 교수는 "'메타버스 맵을 제작해놨으니 알아서 즐겨라'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컨트롤타워에서 총괄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메타버스 맵 내에서 방문이 실제 방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차원의 총괄 부서가 없다 보니 메타버스 지원 예산도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북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 공무원 한 명이 스스로 공부해가며 2~3달 동안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반납해가며 메타버스 맵을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김승원 전남대 인공지능학부 교수는 "메타버스는 10년 이내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신기술이다"면서 "대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메타버스 제작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투자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밭떼기 사업 투자하세요"…74억원 사기친 50대 여성

고수익 미끼 4년간 5명 피해
광주고법 징역 7년 실형 선고

'밭떼기' 사업에 투자해 보실래요?

하우스 밭에서 나는 농산물을 선물로 구입해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친인척이 하우스를 이용한 밭떼기(밭작물이 다 자라기전 거래가 사전에 진행되는 일종의 선도거래)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고수익의 이자를 줄 수 있다며 수십억원을 돈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지인들에게 부동산사업과 건설업투자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 모으기도 했다.

그에게 속은 지인들은 무려 74억원을 투자비로 넘겼지만 투자금은커녕, 대부분 원금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친인척이 나주에서 밭떼기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70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지인이 하는 부동산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1억원을 빌려주면 월 4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 '시동생 하우스 밭떼기에 투자하면 월 4부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A씨의 친인척은 하우스 밭떼기 사업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인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 하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이익금 일부를 메꿔 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한 피해자에게는 140여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4년간 지인들에게 받아 가로챈 투자비 명목의 돈만 74억원. 피해자들은 30억원이 넘는 돈을 여전히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이 4년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수차례 속였으며, 30억원을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양향자 의원 전 특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사무원 허위 등록 2297만원 빼돌려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의 친 외사촌 동생이자 전 특보 박씨는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허위 유급 사무원 3명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2297만원을 부당하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무한 적이 없는 사무원들의 급여를 실제로 받은 것처럼 지출 명세를 작성하고 수당·실비 지급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지출한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박씨가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앞서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당시 양의원은 친척 보좌관의 성추행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자진 탈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도 돌진 차량 버리고 도망친 운전자 34시간만에 경찰 출석 "졸음 운전했다"

사고당시 음주운전 여부 확인 못해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30여 시간 뒤 경찰에 자수해 졸음운전을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은 사고 차량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한 사고를 낸 뒤 사고 차량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찾았지만, A씨를 만난지는 못했다. A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밤 10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며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34시간이 지난 뒤에야 출석해 사고당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불탄 활어차서 2명 숨진 채 발견

불이나 운전석이 완전히 타버린 활어 이동차량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순천경찰과 순천소방 등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순천시 교량동의 한 농로에 주차된 활어 이송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꺼졌지만, 차량 내부에서는 A(55)씨와 B(2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이 농로에 주차되고 2분 뒤 차량 앞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점, 인화 물질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노인 복지관 차 추돌 60대 검거

신호를 위반해 노인 복지관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담양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K5 운전자 A(63)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담양군 담양공고 앞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레이를 추돌해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 레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여·79)씨가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운전자 C(여·55)씨와 함께 타고 있던 두 명의 노인들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1098	1	광양시 광장로70, 210동 4층 404호 [중동,성호2차아파트] 59.79㎡	아파트	94,000,000 94,000,000	
2022타경 1210	1	순천시 삼산로81, 104동 5층 508호 [용당동,용당동아아파트] 84.99㎡	아파트	166,000,000 166,000,000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 1159	1	순천시 교량동 620-25 1655㎡[경계측량요,공공하수처리시설저촉]	답	268,110,000 268,11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51864	1	보성군 득량면 도촌리 산104 39868㎡	임야	32,691,760 32,691,760	입목포함평가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2타경 958	1	여수시 시청동5길20, 1동 3층 301호 306.37㎡	근린시설	742,000,000 742,000,000	
[자동차,중기]					
2022타경 2190	1	사용본거지:순천시 생목길 1 103동 301호 [생목동,벽산쉘시빌] 등록번호:85오0650 차명:포터Ⅱ 연식:2020[주행거리33,226km,배터리방전,변속기수동,유효검사기간2021.11.27~2022.11.26]	자동차	16,500,000 16,500,000	보관:순천시해룡면복성리469-1,이수자동차매매상사[061-743-2227]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2타경 3032	1	사용본거지:순천시 장자보1길 80 [연향동] 등록번호:전남07나5012 기종:기중기 연식:1992[주행거리69,946km.배터리방전.엔진부분화재,차체내외부스크래치및부식,타이어마모상당,변속기수동.유효검사기간2021.03.10~2022.03.09]	중기	50,000,000 50,000,000	보관:여수시평여동산114-138,엑스포터널하행선입구회전구간[채권자순천두레신용협동조합에게보관,010-2682-3307]
2022타경 53952	1	사용본거지:광양시 옥정로 93-42 [성황동] 등록번호:전남02다4459 기종:굴착기 연식:2012[사용시간14,160.3h.번호판및버켓소재불명,전면유리창일부파손,본체우측면후면에다수기스및찌그러짐,유효검사기간2018.04.12~2021.04.11]	중기	55,000,000 55,000,000	보관:순천시서면압곡리568-1,순천자동차매매상사[제3자김수정에게보관,061-721-39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각기일 : 2022. 11. 7. [월] 10:00
2. 매각결정기일 : 2022. 11. 14. [월] 16:00
3.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4.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5.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6.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말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신영민